붙임 **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 활용 안내**

최근 세계적으로 부실 의심 학술지와 학술행사가 급증하고 있으나, 연구자들이 사전에 해당 학술지나 학술행사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 이에 "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"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SAFE : Scholarly ecosystem Against Fake publishing Environment

□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 개요

- ㅇ 운영목적 : 건전한 학술활동 생태계 조성
- ㅇ 운영기관 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
- ㅇ 웹사이트 : https://safe.koar.kr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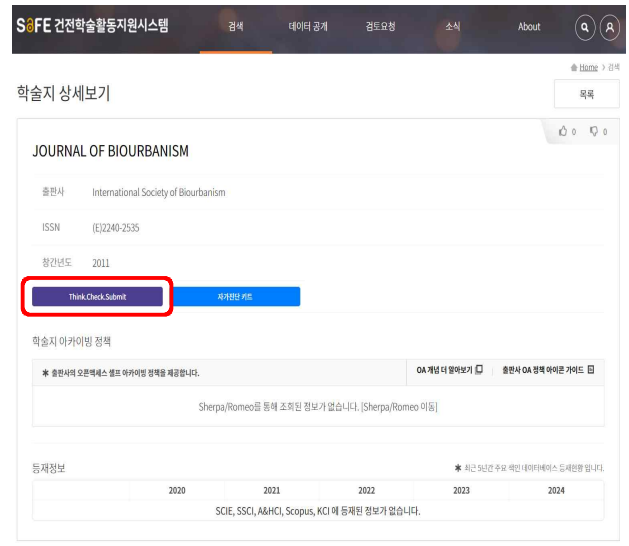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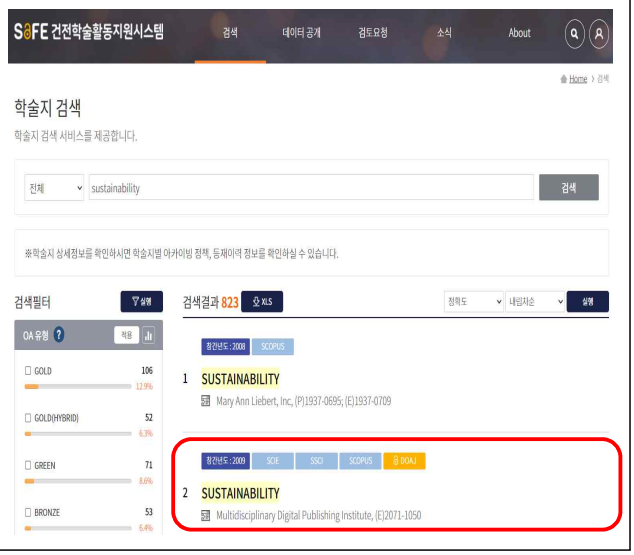
□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의 주요 역할 및 기능

- ㅇ 부실 학술활동 개념 소개 및 국내외 부실 학술활동 관련 동향 안내
- ㅇ 학술지 정보, 부실 의심 학술행사 정보 검색 및 검토요청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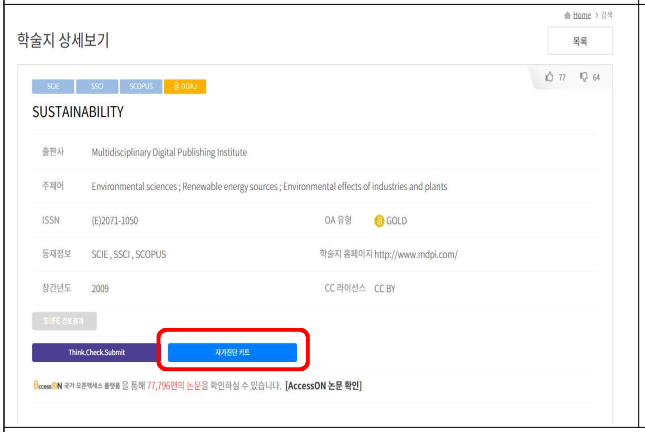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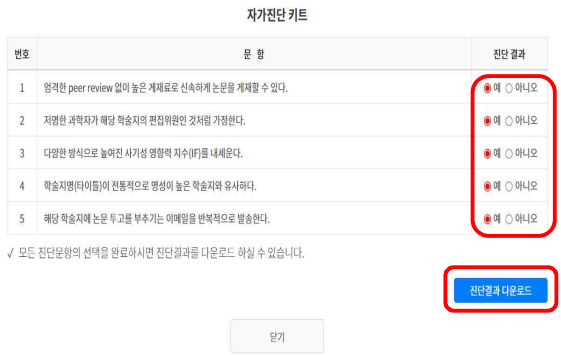
  ※ 현재 208,769종 학술지, 1,616,290건 행사 등록('24년 2월 기준)
- ㅇ SAFE 학술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API 서비스 제공

□ 국내 연구자들(대학원생 포함)에게 권장하는 사항

- ㅇ (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학술행사 참여 前) 본인이 잘 모르는 학술지나 학술행사인 경우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을 통해 평판을 검색해 보고 주변 연구자들에게 문의해 보기를 권장함
- ㅇ (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학술행사 참여 後) 해당 학술지나 학술행사가 부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(SAFE)에 관련 내용을 검토요청하고 동료 연구자들과 토론해 보기를 권장함
- ㅇ (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학술행사 참여 前) 본인이 투고할 학술지를 검색하여 점검 체크리스트(Think.Check.Submit) 및 자가진단 키트 활용하기를 권장함

< SAFE 부실 의심 학술지 체크리스트(Think.Check.Submit) >	< SAFE『Sustainability』학술지 검색 결과>
	

< SAFE 학술지「자가진단 키트」활용 방법>

① 학술지 검색 후 학술지 상세보기 접속, 자가진단 키트 버튼 클릭	② 자가진단 키트 팝업 확인 후 투고 학술지에 해당 내용 체크, 진단결과 다운로드
	

③ 학술지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및 SAFE 검토결과* 최종 확인 * 검토결과 미제공 학술지가 있을 수 있음

※ 시스템 활용 문의 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오픈액세스센터, safe@kisti.re.kr, 02-3299-6058